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최신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문학-영화-음악-사진-도자경판-미술-연극-오페레타…

국보 제32호이며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예술로 꽃피워 우리곁으로

◇사진작가 백종하씨가 찍은 '팔만대장경'. 5월~11월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사진전을 가진 백씨는 작품집도 낼 예정이다.

◇1978년 한진흥업에 의해 제작된 영화 '호국 팔만대장경'의 한 장면.

◇조각가 윤영석씨의 설치미술 '팔만대장경'. 악보로 치환시켜 경전을 마음으로 듣도록 했다.

◇남북통일을 발원하며 통도사 서운암 성파스님이 지난 91년부터 10년에 걸쳐 조성하고 있는 도자 팔만대장경. 2000년 완성된다.

"...
그러다가 원목으로 건너와
진주 분사도감의 뜻대로
서해 남해 바닷물에 담그어
3년을 자긋이 우려냈다
그것을 판으로 만들어서
다시 소금물에 삶아냈다
그늘에 푹 말려서야 비로소 원판이 피어나왔다
수백 서원(書員)들의 판화본을 붙여
수백 각수들이 한 자 한 자 똑같은 필체로
돋을새김이 되어간다
뒷날 김정희 가로되
사람이 쓴 글이 아닌 글이로다 하였다
그 구양순체의 한결같은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먼 파도소리였다가
파도소리 사이로
어쩌다가는 숲속 바람소리도 있었다 ..."
-고은 詩 '고려대장경관' 중에서-

소설 시 영화 음악 사진 도자 미술 연극 오페레타 ….

하나의 소재가 이렇게 예술의 각 장르로 호평받은 예가 일찍이 있었을까. 시와 소설, 영화 음악 미술 사진으로 친근하게 다가온 팔만대장경이 곡을 붙혀 도자와 연극, 오페레타로도 제작되고 있어 대중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게 됐다.

국보 제32호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문화유산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살아있는 민족의 숨결이며 나날이 새롭게 꽃피우는 불법의 나무이다. 그 나무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무한한 생명수를 주고 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집대성한 호법(護法) 호국(護國) 호민(護民)의 상징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국민이 평안해지고 국난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해 준다는 그 관각 동기 때문일까.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로 고통받은 올해 팔만대장경이 유난히 예술의 소재로 각광받았다. 지난 5월 김수철씨가 작곡한 음악이 발표됐고 소설이 2권 나왔으며 영화가 제작중에 있다. 사진전이 열렸고 세계 순회공연을 위한 오페레타까지 기획중이다. 또 16만8천 여장의 도자(陶磁)로 된 팔만대장경이 구어지고 있으며 연출가 이윤택씨는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극본을 써 놓고 이를 연극으로 상영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예술가들의 마음을 흔들고 영감을 자극시켜 예술작품을 낳게 하는 팔만대장경의 가늠하기 힘든 그 신묘한 매력. 재창조되어 새롭게 다가온 팔만대장경의 예술작업들을 알아본다.

소설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소설을 처음 쓴 작가는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조정래씨다. 그는 1976년 첫 장편소설로 (소설 대장경)을 썼고 이것은 1991년 민족과 문학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또하나는 올 2월 나와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오른 김진명씨의 (하늘이여 땅이여)(전 2권)이다. 최근에는 소설가 유익서씨가 소설 (스님)(자유포럼 刊)을 펴냈다.

조정래씨의 (소설 대장경)은 외침을 받아 임금마저 강화도로 피난을 간 막다른 상황속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규모의 불경 판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며 관각불사의 주체를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에서, 따라서 역사진행의 주체적인 동인(動因)을 민중에서 찾고 있다.

60만권 이상이 팔린 (하늘이여 땅이여)에서 팔만대장경은 '고조선 이후 가장 큰 역사가 이뤄졌던 기(氣)의 결정체'로 나온다. 국심의 다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없는, 민족사적으로 크게 뭉쳤던 부형의 기가 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나라를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것. 이 힘은 대장경을 만들었던 온 민족의 염원이며 부처님의 법력으로, 수많은 수탈과 침략으로부터 대장경을 수호해 온 힘이면서 우리 민족을 수호해 왔다고 소개한다. 팔만대장경은 소설구성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스님)은 임진왜란때부터 팔만대장경에 눈독을 들인 일본이 일제식민지하에서 팔만대장경을 일본으로 유출하려 획책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픽션화한 소설. 곰팡내나는 유물을 팔아서라도 피폐해진 불교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지스님의 현실론과 어떠한 수난이 있더라도 민족의 보물만은 굿굿이 지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큰스님과의 갈등이 펼쳐진다. 큰스님의 시자 무염스님의 소신공양으로 유출음모는 제지되고 마침내 해인사 대중스님들의 단합된 결기로 대장경을 지키게 된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영화 가장 대중적인 예술장르인 영화가 팔만대장경을 그대로 놓아둘 리가 없다. 1978년 한진흥업(대표 한갑진)에 의해 영화 (호국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 장일호감독의 (호국 팔만대장경)은 몽고군에 의해 부인사의 대장경이 불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대 홍세승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대장경 불사를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김진규 박암 독고성 주선태 최남현 김희라 등의 배우가 나온다.

곧 크랭크인에 들어갈 영화 '팔만대장경'은 프로덕션 세양이 제작하고 유승현씨가 각본과 감독을 맡았다. 총 제작비 50여억원 규모의 이 영화는 역시 팔공산 부인사 장경이 불에 타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자승 다루와 행자승 미루가 주인공으로, 몽고군의 침입으로 국난의 위기에서 대장경 관각이라는 위업을 완성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하나되어 국난을 극복한다는 내용이다. 고난속에서 참문화는 형성된다는 메시지를 주어 IMF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자 기획됐다.

음악 가수이자 작곡가인 김수철씨는 2년여의 구상끝에 국악과 클래식 그리고 신서사이저가 어우러진 크로스오버기법으로 장중하면서도 서사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 지난 5월 첫 발매된 '팔만대장경 1집' CD는 한달도 안돼 1만매가 순식간에 나가는, 국악음반으로서는 이례적인 진기록을 세웠다. 김수철씨가 시리즈로 낼 4집가운데 첫번째로 나온 1집은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역사적 의미를 우리 악기인 태평소 아장 피리 북과 교회음악의 기본 악기인 합시코드, 중국악기 얼후, 오케스트라와 신서사이저 등으로 상징화했다. 김수철씨는 현재 청소년 정서에 맞는 레게, 록, 퓨전 등 강렬하고 다양한 리듬을 도입한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제 2집을 구상중에 있다.

오페레타 올해 '장보고'로 세계순회공연을 가진 극단 현대극장이 내년에는 '팔만대장경'을 오페레타로 꾸며 순회공연을 갖는다. 현재 김의경씨(시립극단장)가 극본을 집필중이며 내년 1월까지 완성해 우리나라의 유명 작곡가와 외국의 작곡가에게 곡을 맡겨 내년 가을부터 세계순회공연에 나선다는 것. 김의경씨는 고려여성의 강인하고도 깊은 희생정신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극을 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프라노 조수미씨에게 주역 맡기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의경씨는 "침략을 현던 몽고는 현재 미미해졌고 여러번 수난당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든 그 저력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 저력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정신 탐구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도자경판 9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도자(陶磁) 팔만대장경을 굽고 있는 통도사 서운암 성파스님. 두께 1.2cm 가로 49.7cm 세로 25.7cm의 총 16만8천6백80장이 될 도자 팔만대장경은 현재 80%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2000년 회향 예정이다. 도자 팔만대장경은 점도가 강한 하동지방의 흙을 반죽, 초벌구이를 거쳐 도판에 대장경 영인본을 잘크스크린기법으로 새기고 유약을 발라 다시 재벌구이 하는 방법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성파스님은 "고려시대 하나된 불심과 민족혼으로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처럼 조국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아 발원했다"고 말한다.

연극 문화계일라로 불리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이윤택씨. 무대에 올리는 작품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지난 10월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으로 서울국제연극제 연출상을 거머쥔 그가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극본을 써 놓고 이를 무대에 올릴 기회를 찾고 있다. 극의 내용은 팔만대장경이 어떠한 이유로 얼마만큼 고생해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만들던 당시의 주역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기대사와 권력자 최항(최우의 아들), 가공인물인 길상이 그 주인공. 이들은 스님이거나 스님이었거나 스님이 된다 는 공통점을 지녔다. 국가적인 혼란기에 권력지향적인 행정가와 민중을 위한 보살행의 길을 가는 사람의 갈등이 주 내용이다. 이윤택씨는 이 극본을 무대에 올리게 되면 고려시대 성행했던 팔관회 연등회의 모습도 재현할 계획.

사진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석굴암 사진집은 나와있는데 반해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팔만대장경은 아직 없어 아쉽습니다. 한 3~4년 사진을 더 찍어 팔만대장경 사진집을 내고자 합니다."

사진작가 백종하씨는 5월 2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여섯달동안 해인사 구광루에서 '고려팔만대장경' 사진전을 가졌다. 3년 넘게 해인사에 머물며 판전과 대장경을 포커스에 담아온 백종하씨는 아침 저녁, 때에 따른 빛과 그림자로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경관의 모습과 판전의 창살 등을 신비롭게 표현해 전시내내 호평을 받았다.

미술 조각가 윤영석씨는 팔만대장경을 악보로 치환시켰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악보가 그려지고 이를 빨래집게로 나란히 꽂아놓은 설치미술이다. 관객들은 과연 무슨 소리를 들을까.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우리 문화유산, 오늘의 시각전'에 보여진 '팔만대장경 읽기'이다. 이 전시회에서 전광영씨는 한지에 수공작업으로, 최진욱씨는 한 아이가 풀이 많이 자란 수다라장 앞을 지나가는 서양화를 통해 진리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선재동자를 표현했다. 이 그림에서 풀은 팔만대장경의 무수한 글자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gsiee@buddhapia.com)

대장경과 인연있는 예술인

◇성파스님 ◇고은 ◇한갑진 ◇김의경 ◇조정래 ◇윤영석 ◇유익서 ◇김수철 ◇백종하 ◇이윤택

◇대장경을 주제로 다룬 소설들.

◇김수철씨 작곡의 '팔만대장경 I' CD.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